

용기

모세 오경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창세기 9:2)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방패요 네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1)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창세기 21:17)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24)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몹시 괴로워하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곧 디나의 오빠들이 각자 칼을 가지고 담대히 성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창세기 34:25)

그가 이르되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네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셨으니 내가 네 돈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하시며 시므온을 데리고 나오시니라 창세기 43:23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3)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로하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19-21)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이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4:13)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거룩하심이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으시기에 두려우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의 크신 팔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처럼 꼼짝 못하리라. 주의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말입니다. (출애굽기 15:11,16)

너는 또한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워 통치하게 하라. (출애굽기 18:21)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신 것이요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20)

내가 네 앞에 두려움을 보내어 네가 가는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고 네 모든 원수가 너에게 등을 돌리게 하리라. (출애굽기 23:27)

너희는 각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백발 노인 앞에서 공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3, 14, 32)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취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느니라. 너희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25:17, 36, 43)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편히 쉴 수 있고 아무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고 칼이 너희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레위기 26:6)

그 땅이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담대하여 그 땅의 소산을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는 때였다. (민수기 13:20)

오직 여호와께 반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양식이니라. 그들을 보호할 자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21:34)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귀 기울여 들으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가져오라. 내가 들어주리라. (신명기 1:17)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그 땅을 주셨으니,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21,29)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내가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떨며 너희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다. (신명기 2:4,2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하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신명기 3:2,22)

특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4:10)

그들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았을 것이다! (신명기 5:29)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평생토록 지키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네 날이 길어질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율례를 행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6:2, 13, 24)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네 눈으로 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신명기 7:18-19)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신명기 8:6)

이스라엘아,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네 마음과 네 영혼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12,20)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신명기 11:25)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행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충성하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악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 (신명기 13:4,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 떼의 첫 새끼를 먹어야 한다. 그리하여 네가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신명기 13:24)

모든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제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율법서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는 평생토록 이 율법서를 읽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과 규례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명기 17:13,19)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8:22)

남은 자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9:20)

네가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말과 병거와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너희가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는 때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라. 또 지휘관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겁먹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까지 약해질까 염려된다 하라. (신명기 20:1,3,8)

땅의 모든 백성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만일 네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10, 58)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명기 31:6-8,23)

너희는 남녀노소와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까지 모두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하는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라. (신명기 31:12-13)

역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이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네 명령을 거역하고 네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호수아 1:6-7,9,18)

우리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너희 때문에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11)

이는 온 땅의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고, 너희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4:24)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호수아 8: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시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10:8,2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앞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그들의 말을 도살하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6)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데 매우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6)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실로 그를 섬기며, 너희 조상들이 홍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 24:14)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평안이 네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10,23)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더라. (사사기 7:3)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백성의 온 성읍 사람들이 네가 덕 있는 여자임을 알고 있다. (룻기 3:11)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도다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진실히 그를 섬기라 그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라 사무엘상 12:14,20,24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가 사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12, 15, 29)

나와 함께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너의 생명도 노린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사무엘상 22:2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려고 손을 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1: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네 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너에게 돌려주고 너는 내 식탁에서 늘 빵을 먹을 것이다. (사무엘하 9:7)

용기를 내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사무엘하 10:12)

압살롬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암논이 술에 취해 즐거워할 때를 잘 살피고,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여라'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담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3:28)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양받으실 만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망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올무가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1-7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스려야 한다." (사무엘하 23:3)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계시니, 나그네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8:40,43)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하여 빵을 조금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라. (열왕기상 17:3)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다. (열왕기하 1:15)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열왕기하 6:16)

그러나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두 왕도 그분 앞에 서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0:4)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벧엘에 와서 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라. 너희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제물을 드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영원히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열왕기하 17:28, 35-39)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앗수르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을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하라 열왕기하 19:6-7

게달리아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거주하며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열왕기하 25:24)

다윗의 명성이 모든 땅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다. (역대기상 14:17)

온 땅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될 것이다. 역대기상 16:30

용기를 내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행동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19: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관하여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지키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역대기상 22:13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리니,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역대기상 28:20)

그들이 주를 경외하여 주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하게 하소서. 주께서 하늘, 곧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고 나그네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소서. (역대기 6:31,33)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게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을 쳐서 약탈하였으니, 그곳에는 전리품이 매우 많았다. (역대기 2:14:14)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에서 점령한 성읍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성전 현관 앞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역대기 2:15:8)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유다 주변 모든 나라에 임하여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 2:17:10)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조심하여 행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하도록 명하셨다. 보라,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여호와의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이스마엘의 아들 유다 집의 지도자 제바댜가 왕의 모든 일을 맡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도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담대하게 행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역대기 2:19:7,9,11

그가 이르되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역대기 20:15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일 나가서 그들을 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나라들의 모든 왕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역대기 20:17, 29)

강하고 용감하라. 앗수르 왕이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 편이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으니라. (역대기 32:7)

일어나라. 이 일은 네게 속한 일이다. 우리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 행하라. (에스라 10:4)

주님, 간구하오니,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오늘 주님의 종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11)

내가 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들딸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느헤미야 4:14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희는 이방 민족, 우리 원수들의 비난 때문에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 5:9)

왕의 명령과 칙령이 내려진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에서 유대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잔치와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8:17)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성읍들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총독들과 부관들과 대리인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모르드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9:2-3)

시

그리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28)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욥기 37:24)

그는 두려움을 비웃으시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칼을 등지시지도 않으십니다. (욥기 39:22)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이는 없으니, 그는 두려움이 없으시다. (욥기 41:33)

여호와를 섬길 때는 두려움으로, 기뻐할 때는 떨림으로 하십시오. (시편 2:11)

나를 에워싼 수만 명의 무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리셨나이다. 시편 3:6-7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주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시편 5:7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열방이 자기들이 단지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9:20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의인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시편 14:5

그분은 악한 자를 업신여기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맹세하고도 변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존귀합니다. 시편 15: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시편 19:9)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자손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를 경외하라. 내가 큰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내 서원을 갚으리라. 시편 22:23,25

내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4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시편 25:14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확신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27:1,3,14

오, 주의 크신 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아,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1:19,24

온 땅이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온 세상 거주민이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도다. (시편 33:8, 18)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며 그들을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시편 34:7,9,1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질지라도,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며 산들이 그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셀라. 시편 46:1-3

부자가 되고 그의 집이 영광스러워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며 그의 영광은 그를 따라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시편 49:16-17)

내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56:3-4,11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깃발을 주셨습니다. 셀라. 시편 60:4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제 생명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니, 그들이 지혜롭게 그의 행하심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4:1,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내가 그분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66: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니 땅 끝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리라. 시편 67:7
해와 달이 있는 한, 모든 세대에 걸쳐 그들은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시편 72:5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왔으니, 그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시편 85:9

주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나 되게 하소서. 시편 86:11

누가 주의 진노의 위력을 알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만큼 주의 진노가 크나이다. 시편 90:11

진실로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과 무서운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라. 그가 그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서 너는 피난처를 찾을 것이며, 그의 진실함이 너의 방패와 갑옷이 되리라.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도, 대낮에 닥치는 파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시편 91:3-6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두려워하라. (시편 96:9)

그러므로 이방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땅의 모든 왕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시편 102:15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자비도 크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다. 여호와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미치며, 그의 의는 자손 대대로 이르리로다. (시편 103:11, 13, 17)

이집트는 그들이 떠나자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시편 105:38)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명철을 얻었으니, 그의 찬송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시편 111:5,10)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굳건하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확고하니, 그가 원하는 것을 원수들에게서 볼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시편 112:7-8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요 방패시니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복을 주시리라. (시편 115:11,1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고 말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시편 118:4,6)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난을 거두어 주소서. 주의 심판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와 함께합니다. 주님을 경외하

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를 아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119:38,39,63,74,79,120)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35:20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시편 145:19)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기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147:11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33)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잠언 2:5)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워서 자면 달콤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3:7, 24-2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명이 길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리라. (잠언 10:27)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며 그의 자손은 피난처를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26-27)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을 가지는 것이 많은 재물과 그로 인한 고난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교훈이요, 겸손이 존귀에 앞선다. (잠언 15:16, 33)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제거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잠언 16: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것을 가진 자는 만족하며 살 것이며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잠언 19:23)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부와 영광과 생명이 있느니라. (잠언 22:4)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종일 지내라. (잠언 23:17)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변덕스러운 자들과 엮이지 말라. (잠언 24:21)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잠언 28:1)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가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25)

그녀는 자기 집안사람들을 위해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온 집안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잠언 31:21)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할 것이며,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전도서 3:14)

꿈과 말이 많고 허무한 것은 많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5:7)

지혜로운 자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사물의 의미를 분별할 줄 아는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의 담대함을 변화시킨다.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전도서 8:1,12)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전도서 12:13)

예언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 먼지 속에 숨으라.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바위 구멍과 땅굴로 들어가리라. 그가 일어나 땅을 두렵게 흔들 때에 그러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바위 틈과 울퉁불퉁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그가 일어나 땅을 두렵게 흔들 때에 그러하리라. 이사야 2:10,19,21

함께 의논해도 소용없고,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 백성이 동맹이라 말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는 동맹이라 말하지 말라. 그들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이사야 8:10-13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앗수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막대기로 치고, 이집트처럼 지팡이를 들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면 나의 진노가 그치고, 나의 분노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서 그칠 것이다. 이사야 10:24-25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용맹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철하게 하시리니 그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1:2-3)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 12:2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의 옛적부터의 계획은 신실하고 진실하도다. 주께서 성읍을 폐허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셨으며 이방인의 궁전을 성읍이 아니게 하시고 다시는 건축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서운 민족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이사야 25:1-3

그러나 그가 내 손으로 지으신 자기 자녀들을 그 가운데서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이사야 29:23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사자와 어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으르렁거릴 때 많은 목자들이 그를 대적하러 나와도 그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소음에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내려오시리니 이사야 31:4

지혜와 지식은 네 시대의 안정이요 구원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니라. 이사야 33:6

겁이 많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시려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려고 오시리라.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35:4)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앗수르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을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이사야 37:6-7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차게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라! (이사야 40:9)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을 도왔고, 각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6,10,13-14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네 이름을 불러 너를 내 것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리라. (이사야 43:1,5)

너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예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다.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 44:2,8)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을 마음에 품은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옷처럼 그들을 갉아먹고, 벌레가 양털처럼 그들을 갉아먹을 것이나, 나의 의는 영원하고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이사야 51:7-8

나 곧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네가 어찌하여 죽을 사람과 풀처럼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51:12)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당황하지도 말라.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시절의 모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의로움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이며, 압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4:4,14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느냐? 내가 옛날부터 침묵을 지켰는데도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사야 57:11

서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시리라. 이사야 59:19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1:8)

그들은 야자나무처럼 곧게 서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으므로 업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 가운데 당신과 같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5,7)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23:4)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사로잡혀 간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은 돌아와서 안식하고 평온할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30:10)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유익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 32:39-40)

그러나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지 않겠다. (예레미야 39:17)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라. (예레미야 42:11)

그러나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사로잡힌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은 돌아와 안식하고 편안히 지낼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적당히 징계하겠지만, 완전히 벌하지 않고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레미야 46:27-28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있고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의 말과 눈빛에 놀라지 말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안일지라도. (에스겔 2:6)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강철처럼 만들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안일지라도 말이다. (에스겔 3:9)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상들을 멸하고 노프에서 그 형상들이 사라지게 하리라. 이집트 땅에 다시는 왕이 없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주리라. (에스겔 30:13)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34:28)

그들은 자기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며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범한 모든 죄와 수치를 감당하였느니라. (에스겔 39:26)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통치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 6:26)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련하려 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고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랑받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네게 있을지어다 강하라 강하라 하시매 그가 내게 이르시니 내가 힘을 얻어 이르되 주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나이다 다니엘 10:12,19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경외할 것이다. (호세아 3:5)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가 싹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요엘 2:21-22)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그분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느니라. (요나 1:9)

그러나 그들은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 4:4)

그들은 뱀처럼 먼지를 핥고 땅벌레처럼 굴에서 기어 나올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미가 7:17)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오 여호와여, 세월 가운데에 주의 일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월 가운데에 나타내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3:2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입에는 속이는 혀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먹고 눕되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시온에게는 '손을 게으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스바냐 3:13,16)

셸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세덱의 아들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학개 1:12)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학개 2:5)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저주를 받았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굳게 하라. 내가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 집을 복을 주려고 다시 생각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 8:13,15)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니,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내 공경은 어디에 있으며,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내 두려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을 업신여기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이름을 업신여기었나이까 하도다. 말라키 1:6

나의 언약은 그와 맺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으며,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했기에 내가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말라키 2:5)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 날개에 치유를 가져오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번성하리라. 말라키 4:2

복음서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요셉아, 다윗의 자손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2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매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해지더라. (마태복음 8: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마태복음 10:26, 28, 31)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25-2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7:5-7)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시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하시매 (마태복음 28:5,8,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토록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40)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스승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마가복음 5:35-36)

그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50)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조언자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5:43)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 하라.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라. (누가복음 1:13,30)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니라 (누가복음 2:10)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동업자였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10, 26)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다. (누가복음 7: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물까지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구나." (누가복음 8:25)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면 그녀가 나을 것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8:50)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4-5,7,32

그들이 노를 저어 약 25 스타디온이나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19-20)

그러나 보라, 그가 담대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7:26)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요한복음 12:15)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 주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27)

사도행전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사도행전 2:4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들의 간청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하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13, 29, 31)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5:5, 11)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고 그분과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한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인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 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평안을 얻고 덕을 세웠으며,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번성하였다. (사도행전 9:27, 29, 31)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3:16, 46)

그러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으니, 이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14:3)

밤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여라.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9-10)

예수께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자기들에게로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도행전 18:26)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담대히 변론하고 설득하셨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9:8,17)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24)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 포룸과 세 개의 주점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8:15)

서신

그러나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고,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드러났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20)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끊어졌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로마서 11:20)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칼을 헛되이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십시오. 세금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관세는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에게, 존경은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주십시오. (로마서 13:3-4,7)

그러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더욱 담대하게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15)

만일 디모데가 오거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6:10)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체와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향해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7:1,4)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비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담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를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대하려는 그런 확신을 갖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고린도후서 10:1-2)

나는 비난에 관하여 마치 우리가 약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담대합니다. (고린도후서 11:21)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12)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21)

종들아,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에베소서 6:5)

그리고 내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갇힌 몸으로 사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에베소서 6:19-20)

주님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내가 갇힌 것을 보고 더욱 확신을 얻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빌립보서 1:14)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담대히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빌립보서 1:20)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순종해 왔습니다.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빌립보서 2:12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은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디모데후서 1:7)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2)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것을 권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하노라. 나도 나이 든 바울과 같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니라. 빌레몬서 1:8-9

자녀들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분도 또한 같은 것을 함께 나누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시려 함이라. (히브리서 2:14-15)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울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마련하신 살아 있는 길, 곧 휘장, 다시 말해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라. (히브리서 10:19-20)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31)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7, 23)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28)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나의 도우미시니 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5-6)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선하고 온유한 주인뿐 아니라 고집 센 주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17-18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너희도 그의 딸들이니, 선을 행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그들의 두려움에 떨거나 근심하지 말라. 오직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경외심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 (베드로전서 3:6, 14-15)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17-18)

시현

내가 그분을 보고 죽은 자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1:17)

네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시험하려 할 것이요,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열방이 노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임하였도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도다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 모두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이르렀도다 요한계시록 11:18

큰 소리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7)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니, 주의 심판이 나타났음이라. (요한계시록 15:4)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이르되 그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9:5)

외전

자녀들의 어머니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에스드라스 2:17)

그러므로 그 말씀이 말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종말에 관한 것이며, 땅의 기초가 이미 밝혀졌느니라. (에스드라스 2 서 6:15)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네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니, 전능하신 분께서 네 의로운 행실과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순결을 보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이르기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려 하심이라. (에스드라스 2 서 6:32-33)

바람과 불을 섬기는 이는 그의 뜻이요, 그의 말씀은 참되고 그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으며, 그의 계명은 강하고 그의 규례는 두렵도다. (에스드라스 2 서 8:22)

그러므로 이제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네게 닥친 일을 용기 있게 견뎌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떨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네 눈이 볼 수 있는 한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아라. (에스드라스 2 서 10:15, 55)

보라, 내가 네 입에 넣어 줄 예언의 말씀을 내 백성의 귀에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라. 이는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비방하는 자들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라. 불충실한 자는 모두 그 불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에스드라스 2 서 15:1-4)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니 그분을 경외하라. 너희 죄를 버리고 너희 불의를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것들에 관여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에스드라스 2 서 16:67)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시며,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들의 인도자이시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너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너희 불의가 너희를 높이지 못하게 하라. (에스드라스 2 서 16:75-76)

네게 풍족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자선을 베풀고, 적은 것이 있어도 그 적은 만큼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너는 큰 재산을 가진 것이니라. (토빗 4:8,21)

악마는 그 냄새를 맡고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녀에게 이르면 너희 둘 다 일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처음부터 너를 위해 정해진 여자이니, 너는 그녀를 지켜야 하고 그녀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게다가 나는 그녀가 너에게 자녀를 낳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비아스는 이 말을 듣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그녀에게 향하게 되었다. (토빗 6:17)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잘 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니라 (토빗 12:17)

그는 58 세에 시력을 잃었다가 8 년 후에 회복되었고, 자선을 베풀며 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찬양하였다. 모든 민족이 돌이켜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우상을 묻어 버릴 것이다. (토빗 14:2,6)

그러자 오지아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닷새만 더 버티면, 그 기간 동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딧 7:30)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떨었고, 메대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함에 겁을 먹었습니다. 산들이 물과 함께 그 기초에서 옮겨지고, 바위들이 주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유딧이 있던 시대에도,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딧 16:10,15,25)

주님, 저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만국의 왕이시며 모든 권능의 주님이시여,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버림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의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에스더 14:12,19 추가)

의인은 자신을 괴롭힌 자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자기의 수고를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지혜서 5:1)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어떤 사람의 위대함에도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만드셨고, 모두를 똑같이 돌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6:7)

사람들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니, 그 능력을 아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담대함을 드러내시느니라. (솔로몬의 지혜서 12:17)

두려움이란 이성이 제공하는 도움을 배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솔로몬의 지혜서 17:1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요, 즐거움의 면류관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장수를 주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믿음 있는 자의 태중에서부터 그러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충만한 지혜요, 그 열매로 사람을 가득 채우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면류관이요, 평화와 온전한 건강을 풍성하게 하느니라. 이 둘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 가지는 장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내쫓고,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요 훈계요, 믿음과 온유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가난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네 영혼에 수치를 안겨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네 비밀을 드러내시고 회중 가운데서 너를 내쫓으실 것이다. 이는 네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1 장 발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의 자비를 기다리라. 곁길로 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좋은 것과 영원한 기쁨과 자비를 바라라. 옛 세대를 살펴보아라. 여호와를 신뢰한 자가 언제 낙담하였느냐? 그를 경외한 자가 언제 버림받았느냐? 그를 부르는 자를 그가 언제 멸시하였느냐? (전도서 2:7-10)

겁 많은 마음과 나약한 손과 두 갈래로 가는 죄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집회서 2: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길을 지키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구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으로 충만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의 앞에서 겸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사람의 손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들어가리라. 그의 위엄이 크신 만큼 그의 자비도 크시니라' 하리라. (전도서 2:15-18)

속죄에 관하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집회서 5:5)

진실한 친구는 인생의 약과 같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를 찾을 것이다. (집회서 6:16)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라. 너는 죄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으니,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여 네 의로운 길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제사장들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장을 공경하며, 네게 명하신 대로 그에게 그의 몫을 드리라. 곧 첫 열매와 속죄 제물과 어깨 제물과 거룩하게 하는 제물과 성물 중 첫 열매를 드리라. (전도서 7:6,29,31)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라. (전도서 9:1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확실한 씨앗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존귀한 식물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한 씨앗이요, 계명을 어기는 자는 속이는 씨앗이라. 형제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는 존귀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그의 눈에 존귀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권세를 얻는 데 앞서 나가는 것이요, 거칠고 교만한 것은 권세를 잃는 것이라. 부자든지 귀족이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영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전도서 10:19-22)

주님은 모든 가증한 것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며, 그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시느니라. (집회서 15:13,19)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고, 짐승과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집회서 17:4)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두려워하며 죄를 짓는 날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한다. (집회서 18:27)

만일 어떤 말을 들었거든 그 말을 너와 함께 잊어버리라. 담대하라. 그 말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첫걸음이며,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 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요, 모든 지혜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있느니라. (집회서 19:10,18,20)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명철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요 지혜니라 (집회서 21:11)

높은 곳에 세운 울타리도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 네가 친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꾸짖음이나 교만이나 비밀 누설이나 배신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친구는 떠나갈 것이다. (전도서 22:18,22)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집회서 23:27)

경험은 노련한 사람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이 그에게 붙드는 것의 시작이라. (전도서 25:6,12)

현숙한 아내는 귀한 몫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몫이다. 파렴치한 여자는 개처럼 여겨질 것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집회서 26:3,25)

만일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지 아니하면 그의 집이 곧 무너질 것이다. (집회서 27:3)

그것의 죽음은 악한 죽음이니 차라리 무덤이 낫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그 불꽃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집회서 28:21-2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를 얻을 것이요, 정의를 등불처럼 밝히리라. (집회서 32:16)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은 살 것이다. 이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그분이 그의 소망이시기 때문이다. (집회서 34:13-14)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굽어살펴 주소서. 주님을 찾지 않는 모든 나라에 주님의 두려움을 보내소서. 이방 나라들을 대적하여 주님의 손을 드시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집회서 36:1-3)

부와 힘은 마음을 높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둘보다 뛰어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고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풍요로운 정원과 같아서 그분을 모든 영광 위에 덮어 주느니라. (집회서 40:26-27)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있었던 자들과 네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리시는 심판이니라. (집회서 41:3)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을 나타내셨으니,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호감을 얻은 모세라.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요, 기념이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높이시어 그의 원수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기적을 그치게 하시고, 그를 왕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한 명령을 주시고, 그의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집회서 45:1-3)

영광스러운 셋째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네스이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열심을 내었고, 백성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전도서 45:23)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보내시는 분이 빛을 불러들이시면 빛이 두려움으로 그분께 순종합니다. (바룩 3:7,33)

이제 너희는 바빌론에서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월경하는 여인들과 산후조리하는 여인들이 그들의 제물을 먹는다. 이것으로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

므로 그들이 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분명하지 않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1:4, 16, 23, 29, 65, 69)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사랴의 기도 1:18)

오 주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자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장식을 만드시고, 주의 계명으로 바다를 막으시고, 주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깊은 곳을 닫아 봉인하셨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나이다. 주의 영광의 위엄은 견딜 수 없고, 죄인들을 향한 주의 진노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로운 약속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니,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며, 자비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며,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고, 사람들의 악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의 크신 선하심으로 주께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고, 주의 무한한 자비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정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주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죄인인 저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저의 허물이 너무나 많아 하늘의 높이도 감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쇠사슬에 묶여 머리를 들 수도 없고, 풀려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진노를 일으키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저는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제 허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간구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제 죄악으로 저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저에게 영원히 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저를 땅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지도 마소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저를 통해 주님의 모든 선하심을 나타내시리이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처럼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므낫세의 기도 1:1)

그러므로 죄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영광은 거름과 벌레처럼 될 것이다. (마카베오서 2:62)

그의 행적은 마치 사자 같았고, 먹이를 향해 포효하는 새끼 사자 같았다. 그는 악인들을 추격하고 찾아내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태워 죽였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를 두려워 떨었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손에서 구원이 번성했기 때문에 불안해했다. 그는 또한 많은 왕들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의 행적으로 야곱을 기쁘게 하였으니, 그의 기념은 영원히 복될 것이다. (마카베오서 3:4-7)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힘이다. 그들은 큰 교만과 악으로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를 죽이고 우리를 약탈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카베오서 3:19-22)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에는 극심한 공포가 임하게 되었다. (마카베오서 3:25)

그러나 집을 짓고 있거나, 약혼한 아내가 있거나, 포도원을 심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율법대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마카베오서 3:56)

그러자 유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마카베오서 4:8-9)

이 일을 마치고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전리품을 탐내지 마십시오. 고르기아스와 그의 군대가 산에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수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후에야 담대하게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카베오서 4:16-18)

그러므로 그는 용감하게 전투 한복판을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들어 좌우에서 적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양쪽에서 그에게서 갈라졌다. (마카베오서 6:45)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너희 모두에게 그분을 섬기고 그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카베오서 2 서 1:2-3)

기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오 주, 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두렵고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유일하시고 은혜로우신 왕이시여." (마카베오서 2 서 1:24)

그가 경비병들과 함께 보고를 지키고 있을 때, 영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의 왕이신 분께서 큰 나타나시니, 그와 함께 들어가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 기절하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마카베오서 2 서 3:24)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처소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찬양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성전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마카베오서 2 서 3:30)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고귀하고 거룩한 율법을 위해 기꺼이 용감하게 죽는 훌륭한 본보기를 남겨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곧바로 고문을 당하러 갔습니다. 그를 끌고 간 사람들은 그가 조금 전까지 호의로 대했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앞선 말이 절망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질을 당하며 죽을 때가 되자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제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를 맞아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고귀한 용기의 본보기와 덕행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마카베오서 2 서 6:28-31)

그리고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율법 때문에 이것들을 업신여기고, 그에게서 다시 받기를 소망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그는 고통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놀라웠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일곱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아들들 각자에게 자신의 말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생각에 남성적인 배짱을 더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카베오서 7:11-12, 20-21)

이 고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형제들에게 합당한 자로서 죽음을 택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네 형제들과 함께 자비로 다시 영접하리라. (마카베오서 2 서 7:29)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한 자들은 도망쳐 다른 곳으로 떠났다. (마카베오서 2 서 8:13)

마카베오는 자기 군대 6 천 명을 소집하여 적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억울하게 쳐들어온 이방인의 큰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권면하였다. (마카베오서 2 서 8:16)

그리하여 그는 이 말로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법과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게 한 후, 군대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지도자인 자기 형제들, 곧 시몬과 요셉과 요나단을 불러들여 각 부분에 천오백 명씩을 맡겼다. (마카베오서 2 서 8:21-22)

그러나 마카베오와 함께 있던 자들은 용감하게 나흘 동안 요새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마카베오 부대의 젊은이 스무 명이 신성모독에 격분하여 용감하게 성벽을 공격하고 마주치는 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마카베오서 2 서 10:33,35)

마침내 그들은 진영을 공포와 소란으로 가득 채웠고, 큰 성공을 거두고 떠났다. (마카베오서 2 서 13:16)

옛날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던 시절에, 그는 유대교를 믿는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유대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몸과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급히 움직이다가 칼을 빗맞혔고, 군중 또한 성문 안으로 몰려들자, 그는 담대히 벽으로 달려가 군중 한가운데로 용감하게 몸을 던졌습니다. (마카베오서 2 서 14:38,43)

그러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하늘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이제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올 승리와 도움을 기대하라고 권고하였다. (마카베오서 2 서 15:8)

유다의 말은 매우 훌륭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말이었기에, 그들은 진을 치지 않고 용감하게 공격하여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읍과 성소와 성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카베오서 2 서 15:17)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주님이시여, 우리 앞에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옵소서. 주의 강력한 팔로 주의 거룩한 백성을 모독하러 오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마카베오서 2 서 15:23-24)

에녹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의로운 자요 의의 서기관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로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에녹서 15:1)

의로운 자들아,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다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하실 것이다. (에녹서 95:3)

그러므로 고통받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치유가 너희의 몫이 될 것이며, 밝은 빛이 너희를 비추고, 하늘에서 안식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에녹서 96:3)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수호자들을 세우시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니, 마침내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없애실 때까지 그러하시리라. 의인들이 오랜 잠에 들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로다. (에녹서 100:5)

하늘의 자녀들아, 하늘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일을 살피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에녹서 101:1)

의로운 영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의롭게 죽은 자들아, 소망을 가져라. 에녹서 102:4

이제 의인들아, 죄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길에서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폭력에서 멀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 군대의 동료가 될 것이다. (에녹서 104:6)

야셰르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 에녹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고,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야셀서 4: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 손에 넘겨질 것이니, 당신들은 그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야셀서 7:36)

왕이 와서 사라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위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야셀서 15:20)

그때에 여호와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상이 내 앞에서 매우 크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할 것이다.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라." (야셀서 16:20-21)

주의 천사가 그녀가 도망쳐 온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제 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품에 복종하여라." (야셀서 16:34)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생각하였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으니 그는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니라 내가 살아 있는 한, 만일 내가 그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면 그는 내게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내가 그에게 그의 양 떼나 소 떼 중에서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야셀 22:54)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외아들을 내게 바치려 한 것을 보니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야셀서 23:69)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어린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야셀서 26:34)

야곱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형 에서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에서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야곱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야곱에 대한 분노는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도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끌어안으며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함께 온 사람들의 마음에도 야곱을 향한 두려움과 친절한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도 야곱에게 입맞추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네 형제, 곧 에서의 아들들도 야곱과 함께 울며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았습니다. 야곱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야셀서 32:55-58)

이제 그들에 대하여 평안을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원수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유다가 시므온과 레위와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강건하여 용맹한 아들이 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하셨느니라 (야셀서 34:56,59)

여호와께서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왕의 신하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시니 그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너희가 어리석으냐? 너희는 분별력이 없느냐? 어찌하여 히브리인들과 싸우려 하느냐? 오늘 너희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보라, 그들 중 두 사람이 두려움도 없이 세겜 성에 와서 모든 주민을 죽였으니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너희가 어찌 그들과 싸우려 하느냐?" 왕들은 돌아서서 야곱의 자손들을 피했다. 그들은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 싸우려 하지 못했다.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렸다. (야셀서 35:2-3,23)

야곱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몹시 무서워하며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을 성문까지 추격하여 성 안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약 80 명의 남녀가 성벽을 넘어 유다를 에워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유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셔서 그들이 유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용사는 유다를 치고 나서 유다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다가 성벽에서 발이 미끄러져 성벽 아래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야셀서 39:8, 35, 39)

가나안 성읍들의 모든 주민들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들을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저 성읍들에 행해진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누가 저들의 막강한 힘에 맞설 수 있겠는가?" (야셀서 40:10)

그러므로 내 아들 요셉아,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네 주인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그녀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하며 가만히 있었다. (야셀서 42:39-40)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네 자녀와 네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 네가 여호와의 길과 그의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다. (야셀서 47:8)

너는 그가 주군인 파라오에게 묻지 않고는 이집트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어준 경외심과 두려움을 본 적도 없다. (야셀서 52:16)

정오 무렵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과 함께 그 사람들을 불러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관리자에게 자루에 담아 돌아온 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그들에게 "다 잘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의 형제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야셀서 53:4)

유다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네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한번 칼을 뽑으면 오늘 이집트 전체를 멸망시킬 때까지 다시 칼집에 넣지 아니하리라. 너부터 시작해서 네 주인 파라오까지 죽일 것이니라. (야셀서 54:10)

유다는 자기 형제들 중 몇몇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유다는 요셉의 명령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에워싸고 겁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만이 그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야셀서 54:42)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네 온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러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시니 야곱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내 아들이 이집트 모든 주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요셉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여전히 나를 섬기려고 성실하니, 네 눈에도 좋을 것이다.” 하시니 야곱이 아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야셀서 55:2-4)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에서 행하실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의 후손과 함께 그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셀서 63:8)

여호와께서 왕들의 진영에 큰 공포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셀서 64:36,49)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게 하면, 산파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여 살리었습니다. 산파들은 이렇게 온종일 행했습니다. (야셀서 66:27)

모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녀에게 가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모세는 평생 동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진실로 행하였고, 평생 동안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야셀서 73:32,37)

구스의 모든 자손은 모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음이라. 구스의 자손은 모세에게 맹세한 것을 기억하였으므로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더라. (야셀서 76:10)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은 어머니의 맏아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겠다고 명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크신 권능과 강하게 뻗으신 팔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야셀서 80:5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하라. 둘째 무리는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 자손이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집트 사람들을 본 것처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셋째 무리는 유다와 요셉 자손이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자리에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넷째 무리는 레위, 갓, 아셀 자손이었는데,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자리에 서 있으라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도록 하라. (야셀서 81:28-33)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시혼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야셀서 85:26)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야셀서 87:3-4)

네 평생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다만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네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칠 일 후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진영에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아이 성과 그 왕과 그 백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전리품과 가축은 네가 취하라. 성읍 뒤에 매복하여 공격하라. (야셀서 88:4,8,3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죽여서 네 앞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그들의 말을 죽이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 버리라." (야셀서 89:42)

스스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용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끝. 야셀서 91:17

희년

너희는 땅 위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고 그 위에 복이 되라. 내가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리라. (희년서 6:5)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와 네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희년서 12:24)

이 일들 후에, 이 주간의 넷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시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 상이 매우 클 것이다.' 하시니라. (희년서 14:1)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아들, 네 맏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였느니라. (희년서 18:11)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낙심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에서 지키시고 모든 잘못된 길에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희년서 22:23)

그리고 주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종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희년서 24:22)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뜻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영원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서 25:10)

내 누이여,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희년서 27:17)

그리고 유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밟아 버리게 하시고 너와 네 아들 중 하나가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며 너와 네 아들의 이름이 모든 땅과 지역에 퍼져 나가게 하시고 이방 민족이 네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든 나라가 떨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희년서 31:18)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고 읽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네가 보고 읽은 모든 것을 기록하라. (희년서 32:24)

야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수호자는 에서의 수호자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귀하고 칭찬받을 분이시다. (희년서 35:17)

이제 내가 너희에게 큰 맹세를 하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맹세는 없으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놀랍고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희년서 36:7)

그리고 16 일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묻힐 것이며, 요셉이 네 눈에 손을 얹을 것이다." (희년서 44:5)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

요아킴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놀라지도 마라. 나는 주님의 천사이니, 주님께서 네게 보내신 것이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마리아 탄생 복음 2:3)

그 후 천사가 그의 아내 안나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올린 천사이며, 이제 당신에게 보내진 것은 당신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마리아라 불릴 것이며, 모든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아 탄생 복음 3:1-2)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경건의 영,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충만하시리라. (마리아 탄생 복음 5:15)

요셉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거나 그녀에게서 어떤 잘못된 점을 생각하지 마라.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다." (마리아 탄생 복음 8:8-10)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했다. "요셉아,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들의 반역 때문에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요셉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집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원복음 8:14-15)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마리아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라." (제 1 복음 9:9)

그 젊은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의 것이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원신복음 10:18-19)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기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런 다음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대기를 아기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유년기 제 1 복음 13:15)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유년기 복음서 16:12)

그리고 우리는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 10:5)

그러나 예수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땅에서 들어 올리시니 이슬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내 얼굴을 닦아 주시고 입맞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아라. 나다." (니고데모 복음서 11:21)

그러므로 너는 누구이기에 그토록 대담하게 우리 거처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가 묶어 놓은 사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려고까지 하느냐? 니고데모 복음서 17:11

그러자 왕의 예언자 다윗이 담대히 외쳐 이르되,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라.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니고데모 복음서 19:13)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대로 두려워하며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서신 1:10)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그분 안에서 소망을 두도록 가르칩니다. 그분은 미혹된 세상을 향한 유일한 자비로운 분이시며, 세상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데클라 여사는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더욱 강해져 그의 사슬에 입맞춤했습니다. (바울과 데클라 행전 4:5,12)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충실한 종 테클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를 위해 열린 곳을 보아라. 거기가 네 영원한 거처요, 거기서 네가 지복직관을 받을 것이다."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 11:11)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겸손과 경외심은 순종을 통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까지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그의 거룩한 말씀을 경외와 진실함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9:1)

우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공경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연장자들을 존경하며,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훈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져야 합니다. 특히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 그분께 얼마나 큰 효력을 갖는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10:7,11,13)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며 좋은 날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혀를 악에서 지키고 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11:2-4,9)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니, 그분을 경외하고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13:1)

너는 혀의 채찍에서 숨겨질 것이며, 멸망이 닥쳐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악인과 죄인들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도 너와 화평할 것이다.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23:10-11)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 경외심,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절제, 거룩함, 그리고 절도 있는 삶을 허락하사 주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존귀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클레멘트의 고린도전서 24:2)

또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내 품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클레멘트의 고린도후서 2:15)

그러므로 형제들아, 양심에 따라 기꺼이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떠나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늑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늑대가 양을 찢어 죽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양은 죽은 후에 늑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도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죽은 후에 영혼과 육체를 지옥 불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3:1-2)

이제 우리 믿음의 조력자는 두려움과 인내요, 우리와 함께 싸우는 자는 오래 참음과 절제니라. (바나바 일반서신 2:2)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바나바의 일반 서신 3:12)

그리고 그는 이 계명을 존중하여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마음에 받은 말씀의 명령을 묵상하는 자들과, 주님의 의로운 판결을 선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일반 서신 9:17)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견고한 바위의 높은 굴에 거하시리라." 그리고 같은 선지자가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물은 신실하니 너희는 영광 중에 왕을 뵙고 너희 영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리라."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오른쪽에 강이 흐르고 그 곁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나니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물속으로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올 때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경외와 소망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바나바의 일반 서신 10:6,14)

너는 네 아들과 네 딸에게서 손을 떼지 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또한 착취하지 말라. 교만한 자들과 마음을 합치지 말라. 의롭고 겸손한 자들 가운데 거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라. 두 마음을 품거나 두 혀를 갖지 말라. 두 혀는 죽음의 올무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아래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네 종들에게는 원망하는 명령을 내리지 말라. 이는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이다. 그분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르시는데, 성령이 예비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이다. (바나바 일반 서신 14:12-15)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진노를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지금 누리는 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로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서 3:5-6)

이제는 내가 더욱 두려워해야 할 때이며, 나를 교만하게 하려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서 1:13)

그러나 나는 정신을 차리고 갓의 영광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어 무릎을 꿇고 이전처럼 다시 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헤르마스의 목자, 환상 3:8)

무엇보다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로 만드신 유일신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포괄하시며,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십니다.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정욕과 불의를 멀리하며, 의를 입으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헤르마스 2 권(계명록) 1:1-5)

그가 이르되 내가 첫 계명에서 너에게 신실함과 경외심과 회개를 지키라고 명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이르되 예, 주여. 하니라. (헤르마스의 계명서 제 2 권 6:1)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일에 능력이 있을 것이요, 네 모든 일이 훌륭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일을 잘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할 경외심이다.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경외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는 두려워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능력이 없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다. 마귀의 일은 악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주님을 경외하면 마귀의 일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강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헤르마스 2 권(계명서) 7:1-6)

선행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행하라. 그가 이르되, 네가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할 선행의 미덕이 무엇인지 들어 보라. 첫째는 믿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사랑, 화합, 공평, 진실, 인내, 순결이니라. (헤르마스 2 권(계명록) 8:8)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며 온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듣든지 깨닫고 즉시 이해하느니라.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헤르마스 2 권(계명록) 10:13)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악한 욕망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살 것이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는 악한 욕망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한 욕망을 대적하라. 이 경외심은 선한 욕망 속에 거한다. 악한 탐욕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너에게서 멀리 도망쳐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네 갑옷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고 그 승리로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선한 욕망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얻은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면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만일 네가 선한 욕망을 섬기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악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네 뜻대로 그것들이 너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르되, 선한 욕망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싶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진리와 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시니라. (헤르마스 2 권(계명서) 12:6-10)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귀와 그의 쾌락을 버리라. 그것들은 악하고 쓰라리고 불순하기 때문이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는 회개의 사자이며, 마귀를 다스리는 자이다. 마귀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대적하면, 그는 허무하게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를 마치 큰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두려워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허무함을 발견하면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나 나, 회개의 사자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진 것은 온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은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죽은 사람의 신경처럼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라. (헤르마스 2 권(계명서) 12:22-23, 27, 30, 33)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너희 성읍에서 얻을 것이요, 슬픔이나 두려움 없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준다. (헤르마스 3 권(비유론) 1:9)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라. 만일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헤르마스 3 권(비유론) 5:6)

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이제 한 가지만 더 내게 보여주소서. 그가 이르되, 무엇을 묻느냐? 내가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자들은 거짓된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노라,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느니라. (헤르마스 제 3 권(비유론) 6:28)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회개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헤르마스 3 권(비유론) 8:81)

그러나 이제 너는 천사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같은 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 존귀한 사자를 통해 네 집에 온 것은 네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때,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헤르마스 제 3 권(비유론) 9:4)

그러나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지 부인할지 고민하다가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가 더 적습니다. (헤르마스 3 권(비유론) 9:237)

알고 보십시오. 당신께서 예수를 내게 넘겨주신 날, 나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손을 씻어 (내가 무죄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분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의 십자가 처형에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처형 집행자들과 그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로부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내게 전한 말을 특별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습과 목소리와 가르침이 변함없고, 제자들도 온전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담대히 그의 부활과 영원한 왕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낸 편지)

에덴의 잊혀진 책들

용기를 내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어둠은 벌이 아니다. 오 아담아, 내가 낮을 만들고 그 안에 태양을 두어 빛을 비추게 했으니, 이는 너와 네 자손이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담과 이브 1 권 13:12)

그리고 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이 에덴동산에서 내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두려워했기에, 태양의 눈부신 빛을 보지 못했고,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그의 몸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1 서 16:2,7)

"그러나 이제 네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정한 날들 끝까지 함께 있겠다." (아담과 이브 1 서 19:6)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이 산에서 쫓아냈으니, 너희를 해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겠다." (아담과 하와 1 서 20:2)

아담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에는 더위도, 나른함도, 움직임도, 떨림도, 두려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후로는 이 모든 고난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겪고, 걸어 다니며 나른함과 고통을 느끼고, 이 산에 오르다가 죽기까지 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겠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책 22:3,6)

아담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동굴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다. 그는 처음 너를 속였던 것처럼 다시 너를 속이려 한다. 처음에는 뱀 속에 숨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너에게 왔다. 네가 그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사탄과 그의 무리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 1 서 27:12,15)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렇게 하셨으니, 아담이 동굴에 있을 때 이 금 지팡이들이 밤에 그의 주위를 밝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 1 서 29:7)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 아담아, 어찌하여 이전에는 이 두려움도, 이 금식도, 이 염려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 이 공포도 없었느냐?" (아담과 하와 1 서 40:1)

그러나 아담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바위를 너를 덮으려고 천막처럼 펼쳐 놓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아담과 이브 1 권 49:5)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동굴로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1 서 56:10)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여라. 방금 네게 온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 1 서 59:4)

그러니 아담아, 보아라. 그가 네 앞에서 공중에 묶여 도망칠 수 없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가 네게 무슨 짓을 하든지 조심하고 경계하라. (아담과 이브 2 권 4:5)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원수가 너를 이길까 두려워 네가 결혼하기를 바란다. (아담과 이브 2 권 7:3)

그러나 이제 내 아들 셋아, 너는 네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도록 명하고,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2 서 8:14)

셋은 그의 맏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사십 일마다 자주 금식했습니다. 셋의 가족은 바람이 불어 정원의 나무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순수했으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없었고, 시기심이나 악행, 미움이 없었습니다. 동물적인 정욕도 없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나 저주가 나오지 않았으며, 악한 계략이나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맹세해야 할 때면 의로운 아벨의 피로 맹세했습니다. (아담과 이브 2 권 11:11-12)

에녹은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영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굳게 매달리며, 정직한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의로움과 순결함, 공의로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 (아담과 이브 제 2 서 22:7)

용기를 내라,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으니, 보라! 너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과 온 가족에게 네가 없는 동안 네 집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주고, 주님께서 너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실 때까지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하게 하라. (에녹의 비밀 1:10)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허영심 많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것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경외함으로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내 자녀들아,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다시 데려오실 때까지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말라. (에녹의 비밀 2:1)

에녹아,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멀리서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여기에 거하시는데, 열 번째 하늘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에녹의 비밀 20:2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천사 중 하나인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내게 이르시되 '에녹아,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라.' 하시니라. (에녹의 비밀 21:4)

용기를 내라, 에녹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내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함께하라. (에녹의 비밀 22:5)

한 해가 다른 해보다 더 존귀하듯, 사람마다 더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아,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 어떤 사람은 총명해, 어떤 사람은 교활해, 어떤 사람은 침묵이 맑아, 어떤 사람은 깨끗해, 어떤 사람은 힘이 세어, 어떤 사람은 용모가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젊어, 어떤 사람은 재치가 뛰어나어, 어떤 사람은 몸매가 좋아,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해. 이 모든 것이 널리 알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장차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에녹의 비밀 43:2)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책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모든 세대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지혜를 가진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노라. 그들이 이 책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어떤 음식이나 달콤한 것보다 더 사랑하여 읽고, 그 안에 전념하게 하노라. 그러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즉 이 책들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에녹의 비밀 48:5-6)

내 소망은 여호와께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솔로몬의 시 5:9)

그리하여 나는 진리 안에서 강해지고 주의 의로움으로 거룩해졌으니, 나의 모든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하였도다. (솔로몬의 송가 25:10)

흠 없이 그 길을 걷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의 시 39:5)

또한 그는 우리 손에도 그 표식을 부착하라고 명확히 명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행위를 의롭게 행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 서신 6:48)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결코 목표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 서신 7:35)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과 가장 큰 악을 함께 나누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굳게 믿는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용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올바른 계획을 원래 의도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 서한 7:49,51-52)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우정을 얻는다면, 당신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8:32)

왕은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든 고귀한 생각으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9:13-14)

왕은 그 대답에 큰 소리로 환호한 후, 다음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할까?" 그러자 그 사람이 설명했다. "용기와 의로움이 뛰어나고, 무모하게 목숨을 걸고 승리하려 하기보다는 부하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당신도 그분을 본받아 모든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리스테아스 서신 10:9-10)

그들의 용기와 인내에 대한 존경심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처형한 자들에게까지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우리 민족을 짓누르던 폭정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내로 폭군을 물리쳤고, 그들을 통해 조국이 정화되었습니다. 지혜는 판단과 정의, 용기와 절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카베오서 4 권 1:9,16)

너는 내 노년의 순수한 입과 평생 율법을 지켜온 나의 충실함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내 조상들은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할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마카베오서 4 권 2:57)

이에 왕의 신하들 중 일부는 그의 노령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를 동정하며, 그의 용기에 감탄하여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카베오서 4 권 3:8)

그러나 그들은 그의 설득을 듣고 그의 무시무시한 책략을 보고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철학을 동원하여 폭군에게 맞섰고, 정당한 이성을 통해 그의 폭정을 무너뜨렸다. (마카베오서 4 권 4:30)

그러나 그들은 그 남자의 대담한 말에 크게 분노하여, 탈골 도구로 그의 손과 발을 탈골시키고, 팔다리를 관절에서 뽑아내고, 줄을 풀어 버렸으며, 그의 손가락과 팔, 다리, 팔꿈치 관절을 비틀어 버렸다. (마카베오서 4 권 5:31)

그들 모두가 서로를 밝고 담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우리 몸을 바치겠습니다. 죽이려 드는 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큰 영혼의 싸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4 권 6:26-27)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일곱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일곱 번이나 아이를 낳으며 모성애를 느꼈고, 매번 진통을 겪으면서 자식들에게 깊은 애정을 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현재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담대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보고, 떨리는 콧구멍에서 임박한 죽음의 징조를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회의실에서 교활한 변호사들이 의논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자연과 부모됨,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고문대에 오른 자녀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의 운명을 놓고 두 가지 선택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잠시 동안 일곱 아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참된 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용기를 되새겼습니다. (마카베오서 4 권 7:5,14,20)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어머니는 그들 중 누구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았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불굴의 정신을 지닌 듯, 아들들을 다시 한번 불멸의 생명으로 낳는 것처럼, 그들이 종교를 위해 죽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마카베오서 4 권 7:34)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본받으라. 무지한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를 본받아 그의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도 경외하고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에게 침묵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쉬지 않는 자는 그의 죽음이 그의 삶보다 나을 것이며, 울음소리가 노래소리보다 나을 것이다. 슬픔과 울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노래와 기쁨의 소리보다 나을 것이다. (아히카르 이야기 2:14,20,34,48)

그러자 파라오는 하이카르의 거침없는 언변과 대담한 대답에 당황하여, 왕좌에서 일어나 하이카르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네 주군이신 왕께서 누구를 닮았는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히카르 이야기 5:49)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공부와 양 떼를 돌보는 일에 힘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내를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라. (르우벤의 유언 2:1)

그러므로 나는 이 년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내 마음을 괴롭혔고,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므온의 유언 1:18)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순전히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 부지런히 힘쓰라. 비록 사로잡혀 가고 성읍과 땅이 파괴되고 금과 은과 모든 소유가 없어질지라도,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불경건의 눈먼 자와 죄의 무감각 외에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레위기 4:1,8)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우리와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저와 제 형제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다의 유언 1:23,51)

만일 너희가 즐거워하며 포도주를 마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라. 즐거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술취함이 생기고 수치심이 도사리게 되느니라. (유다의 유언 3:25-26)

그러나 너희는 평생토록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스불론 유언장 2:40)

이제 내 자녀들아, 주님을 경외하고 사탄과 그의 영들을 조심하라. (다니엘 2:14)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서 있게 행하고, 무질서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으로, 또는 때를 어겨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납달리의 유언 1:21)

내 자녀들아,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사람과 천사들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치고 들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납달리 유언 2:26)

그는 거룩한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미움을 이겨내기 때문이라. 주님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으로라도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갓의 유언 1:29-30)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둠 속에서도, 갇힌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며, 인자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땅에서 난 자처럼 약하거나 겁먹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유언 1:21-22)

내 형제들은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악한 의도로 형제들을 대적하지 않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팔려갈 때에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내가 야곱의 자손이며 위대한 사람이고 용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존경하라. (요셉의 유언 2:5-7)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비록 벨리알의 영들이 온갖 악으로 너희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내 형제 요셉을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벨리알의 영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베냐민의 유언 1:14-16)